

‘예술의 확산, 사람의 성장, 지역의 변화’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문화예술본부 통합성과공유회’ 12일 개막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2024 문화예술본부 통합성과공유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통합성과공유회는 오는 12일 오후 3시 재단 3층 전시실에서 열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30일까지 진행된다. 주말과 공휴일에도 전시실을 개방하며, 도민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10일 재단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의 슬로건인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에 발맞춰 올해 예술가와 도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30개 단위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그간의 성과를 정리하고,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공유하는 자리다.

성과공유회 주제는 ‘예술의 확산, 사람의 성장, 지역의 변화’로 재단이 예술가의 가치를 확산하고, 도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우리

지역이 변해간다는 의미를 담았다.

먼저 예술의 확산은 예술가와 예술단체의 창작활동 지원하며, 예술의 가치를 확산하는 창작지원팀의 사업 성과를 조명했다.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청년문화예술 주문배달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미술품 대여전시 사업, △예술인복지지원센터 운영사업 △예술로 파견지원 사업 등 6개 분야, 17개 단위 사업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어 사람의 성장은 문화예술 향유 및 문화예술교육과 참여를 통해 도민의 주체성을 증진한 교육문화팀 사업 성과를 소개한다. △유아 및 아동·청소년 △장애인 예술활동 및 문화예술교육지원 △소외계층 문화향유 지원 △청년문제 해결 △지역 네트워크 강화 △청년 일자리 및 기획역량 강화 등 6개 분야, 12개 단위 사업의 성장을 한눈에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변화는 문화예술을 통해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도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든 성과와 가치를 공유한다. 예술이 어떻게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는지 직접 느껴볼 수 있다.

한편 개막식은 청년예술가와 초등학교생들의 특별한 축하공연으로 시작된다. 전북 문화예술인, 단체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해 예술로 이어지는 뜻깊은 시간을 함께할 예정이다.

재단 관계자는 “이번 통합성과공유회는 예술가와 도민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자리”라며 “문화예술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누리집(www.jbct.or.kr)과 창작지원팀(063-230-7441) 및 교육문화팀(063-230-7451)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남원시 노인복지관에서는 지난 6일 2층 대강당에서 노년사회화 프로그램을 수강한 회원들의 축제인 제11회 청춘제를 성황리에 마쳤다.

어르신 같고 닮은 실력 맘껏 펼쳐

남원시 노인복지관, 노년사회화 프로그램 수강생 축제 제11회 청춘제 개최

남원시 노인복지관(관장 장진석)에서는 지난 6일 2층 대강당에서 노년사회화 프로그램을 수강한 회원들의 축제인 제11회 청춘제를 성황리에 마쳤다.

청춘제에는 남원 시니어들의 제2의 청춘을 느껴볼 수 있는 자리로, 회원과 가족, 초청 인사 등 300여명이 참여해 축하하였으며, 오케스트라 공연을 시작으로 복지관 프로그램 이용 어르신들이 1년 동안 배운 열정과 정성으로 같고 닮은 실력을 뽐내었다.

특히 멋글씨(Calligraphy)와 서예, 미술작품이 복지관 1층에 전시되었고, 부대행사로 약초교실 시음회, 사진반과 함께하는 인생 한컷 등을 진행했으며, 오케스트라, 플룻교

실, 난타, 한국무용 등 프로그램발표회가 2층 대강당에서 진행되었다. 또한,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시 유치 염원을 위한 퍼포먼스를 어르신들과 펼쳐 볼거리를 제공했다.

장진석 관장은 인사말에서 “긴 시간 같고 닮은 실력으로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어르신들께 진심으로 박수를 보낸다”며, “노년 사회화 교육을 통해 늘 도전하시는 어르신들의 열정이야말로 우리 복지관의 자랑”이라고 전했다.

한편 최경식 시장은 “남원의 대표 노인여가복지시설인 노인복지관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들의 숨겨진 끼와 재능을 펼치도록 마련한 것에 감사를 전한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 뮤지션 아우리(OU:RE), 신곡 ‘Fire’ 발매

전북 레드콘 음악창작소 창작지원 통해 만들어져

레드콘 감성과 현대적인 감각을 결합하여 독창적인 사운드를 들려주는 전북의 5인조 콰텟트 ‘아우리(OU:RE)’가 새로운 싱글 ‘Fire’를 발매했다.

이번 발매된 싱글 타이틀 ‘Fire’는 ‘모두가 떠난 세상 속에서 불꽃처럼 피어나는 열정’을 강렬한 기타 사운드를 통해 표현해냈다.

지난 12월 3일 발매된 신곡 ‘Fire’의 뮤직비디오는 전북 레드콘 음악창작소와 아우리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감상할 수 있다.

특히, 실감 콘텐츠뷰트 VX스튜디오에서 촬영된 이번 뮤직비디오는 압도적인 몰입감을 선사하며 곡의 분위기를 더욱 강렬하게 만들었

다. 거대한 스크린과 불을 활용한 영상미는 보는 이들에게 시각적인 즐거움을 선사하며, 곡의 메시지를 더욱 강렬하게 전달한다.

팀의 리더 김승재는 “이번 앨범은 가장 날 것의 감정을 담아냈습니다. 특히, VX스튜디오에서 촬영한 뮤직비디오는 곡의 분위기를 더욱 생생하게 표현해 준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아우리의 음반과 뮤직비디오는 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전북 레드콘 음악창작소 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의 창작 지원을 통해 제작되었다.

/이만호 기자



아우리 싱글 ‘Fire’ 앨범 자켓 사진

부안예술회관, 송년음악회 스페셜 콘서트 18일 개최

부안예술회관에서 2024년을 마감하는 12월의 마지막 공연으로 부안군민과 함께 클래식 음악을 통해 작은 행복을 나누고자 오는 18일 오후 7시 30분에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송년음악회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의미로 부안예술회관 상주단체인 클나무 오케스트라와 부안의 딸 소프라노 박소영, 테너 이원웅과 프레데릭 발렌타인, 베이스 바리톤 김이삭이 함께 출연한다. 단순한 공연 형식을 넘어 관객 참여형 콘서트를 진행하여 클래식의 즐거움을 부안 군민과 함께 무대를 꾸밀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오페라 아리아와 함께하는 세계적

인 명곡과 아리랑 환상곡의 한국적 감성을 담은 아름다운 노래들이 어우러져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가족, 연인, 친구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의미 있는 음악회로 마련했다.

공연은 무료 공연으로 선착순 입장이며 만석시 입석이 불가하다. 또한 공연장 내 음식물 섭취가 금지된다.

부안군 관계자는 “이번 음악회에는 클래식 음악의 다양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무대가 될 것이다. 많은 관심 바라며 방문하시어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지역출신 예술인과 함께하는 ‘고창 송년음악회’ 19일 개최

고창문화의전당이 오는 19일 저녁 7시30분에 지역출신 예술인과 함께하는 ‘2024 고창 송년음악회’를 연다.

프랑스와 한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바리톤 노동용, 판소리 춘향가 이수자로 활동하는 명창 정수인, 소프라노 김지혜 등과 함께 소리꾼 장사익이 함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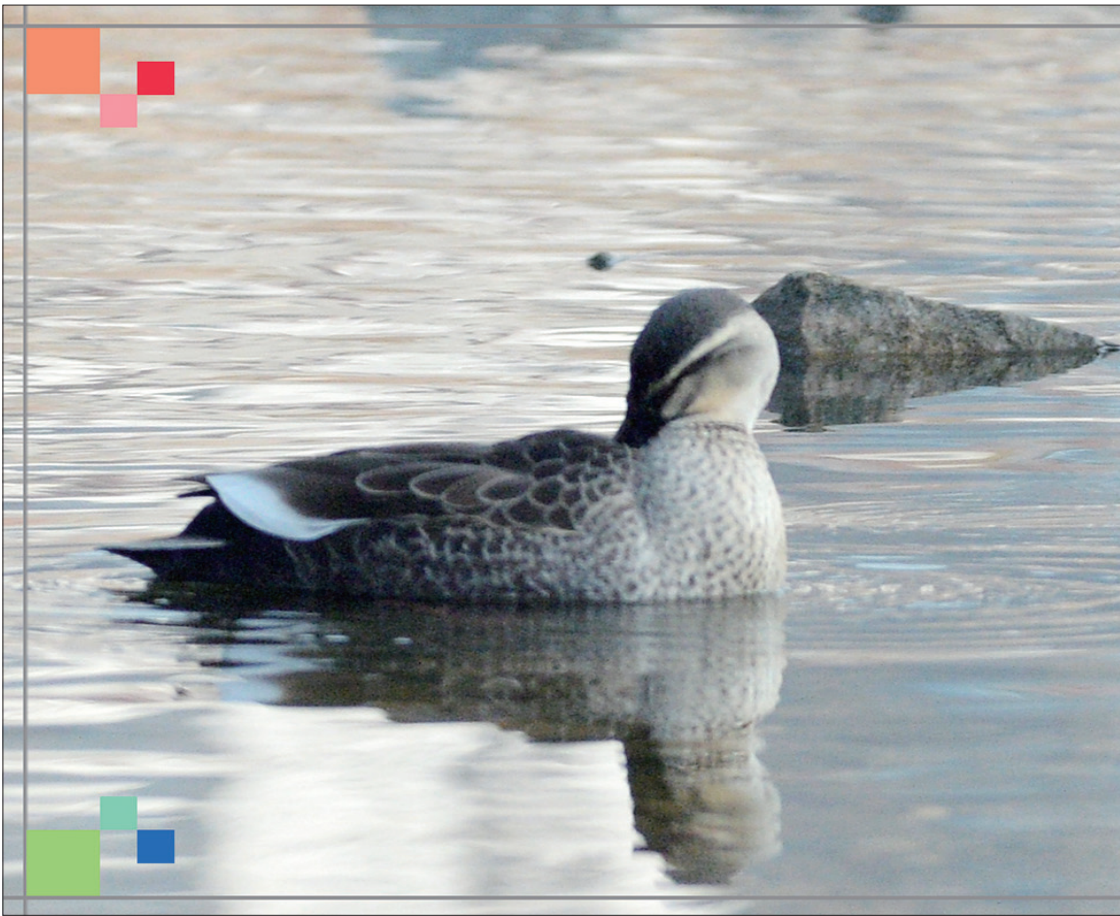
앞서 18일 오후 4시에는 ‘고창 청소년 음악페스티벌’도 열린다. 고창문화원 소속 모양 청소년 오케스트라, 강호항공고등학교의 강호오케스트라, 에어포일(밴드), 루시드(댄스), 고창고등학교 앤젤로스(밴드), 고창중학교 제스트(댄스), 흥덕중학교 엘리서(밴드), 고창초등학교 늘푸른 중창단이 끼와 재능을 선보인다.

공연료는 무료이며 티켓소지지만 입장 가능하다. 티켓예매는 오는 12월 9일부터이며 인터넷 예매는 고창문화의전당 홈페이지 현장예매는 고창문화의전당에서 진행된다. (현장예매



주말 제외)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천을 살립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 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